

社說

시의원 봉급 얼마나 인상해야 하나

기초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놓고 시민과 시의원 간에 현격한 시각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비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행세나 하고 다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과 겹치지 않는 의정비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57.4%를 차지하고 있어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21.7%와 줄여야 한다는 의견 2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생활비도 않되는 의정비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유급제를 시행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포천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일례로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2천52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90.4%로 잠정 인상액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를 인상할 경우 능력있는 후보자가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좋아질 것 이다 39.2%와 능력 있는 사람출마가 35.8%, 좋아질 것 없다는 의견 25%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비를 현실화 했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리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주군은 지난해 2천25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73.3% 잠정 인상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은 최고 90.4%에서 최저 6.3%(군포시 3천348만원에서 3천576만원)까지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동일한 3천180만원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월230만원 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200만원 이하, 월250~300만원 정도, 그 이상으로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시의원에 대한 불신임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시민들은 시의원 의정활동 동비도 안된다는 것이다.

포천시의회는 경우 연간 1인당 의정비로 2천760만원을 받는다. 시의원들은 당초 의정비를 산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 230만원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의정활동비도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급제로 전환해 놓고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생현장은 돌보지 않고 각종 행사장에 다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수를 인상할 경우 능력있고 참신한 사람들이 입후보한다고 지적한 점은 의원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도 좋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집행부 독주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의정비를 현실화해도 좋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국장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규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사항을 실천을 준수한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착공 시민걷기대회

홈플러스 앞 - 소흘 생활체육공원 행사장 코스

포천시는 소흘 생활체육공원 착공기념 '2007 시민한마음 건강 걷기대회'를 21일 소흘읍사무소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소흘읍민들은 소흘읍사무소 광장에 모여 몸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앞-송우사거리-

송우고등학교-동남고등학교-소흘 생활체육공원 행사장을 잇는 코스를 따라 걸으며 순위 없는 대회로 개최되어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계기가 되었다.



포천시는 소흘 생활체육공원 착공기념 '2007 시민한마음 건강 걷기대회'를 21일 소흘읍사무소 광장에서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소흘읍민의 숙원사업인 소흘읍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범시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걷기대회에 이어 소흘 생활체육공원 착공기념식에는 박운국 포천시장과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소흘읍민이 참여해 생활체육공원 착공을 축하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은 소흘읍 이동리 5만4천㎡ 부지에 사업비 365억원을 들여 지어지며 2008년 8월 준공예정인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건강관리실 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선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위한 워크숍

관계자 적극적인 참여가 민관협력 성패 좌우

포천시에서는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관계자간 워크숍을 지난 18일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관협력네트워크 성공적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성방안(행정자치부 주민혁신단 민관협력팀장 김기봉), 선진지역 우수사례(거창네트워크 사무총장 유수상)에 대한 특강과 6대서비스 대상 분과별 우리지역 맞춤형 서비스 컨텐츠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토의 및 파트너십 강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민간 및 공공분야의 서비스제공자 12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내 서비스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워크숍을 통해 민·관의 관계자들은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역사회의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민관협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앞으로 포천시민관협력네트워크는 주민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조직하고 있는 민간서비스 자원간 네트워크인 주민협의회와 공공기관의 서비스자원 네트워크인 공공기관협의회를 상호 수평적으로 협치하는 형태로 연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구축이후부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에서는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관계자간 워크숍을 지난 18일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인원칼럼

학교 급식법 지원 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김성남 포천시의회의원

지역산 농산물 확대와 조례제를 연계할 경우 지역 경제성장과 농촌활성, 분권적 지방자치의 가치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운동은 우리들의 2세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우리농업이 학교급식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만들려는 전국 학부모, 교사, 농민, 시민단체들의 연대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 (학교급식네트워크)가 구성되었고 (학교급식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또한 결성되어 (학교급식법) 개정과 풀뿌리자치 조례제정운동을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가기 수년 전부터 같이 동참해 왔던 운동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포천시에 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급식법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신체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개선 운동은 끊이지 않는 식중독 사고를 불러오고 인스턴트 음식과 서구적 식문화를 조장하는 기존의 학교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지로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 포천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으로 첫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시간당 100인 이하 학생들로 무료급식을 시작했지만 추후 기금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학교급식법 취지에 맞게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전개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구조가 민연한 사회문제였다. 그 위에 무조건 쌀 것을 찾아 식재료 공급하다보니 당연히 값싸고 식품안정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급식을 먹는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은 먹거리를 통한 정서 함양 교육과 식품안전을 함께 담보한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바른 맛을 교육하여 향후 급식품목별 식량자급률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한 끼를 외식한다는 차원 이상의 사회와 국가의 미래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이슈인 것이다. 특히

이와 별도로 우리 포천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을 각 학교에 공급하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중 차액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고올해부터는 우리 포천의 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은 먹거리를 통한 정서 함양 교육과 식품안전을 함께 담보한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바른 맛을 교육하여 향후 급식품목별 식량자급률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한 끼를 외식한다는 차원 이상의 사회와 국가의 미래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이슈인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에 우리 농축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위한 차액만 지원해주고 생색만 내려는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포천시는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미래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이슈인 것이다. 특히



오색단풍 화려한 운악산 단풍축제 오색단풍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제6회 운악산 단풍축제가 27일부터 28일 이틀간 포천시 화현면 운악산 입구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군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20일 ~ 10월 30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7.10.20 포천신문 제392호 발행

2007.10.30 포천신문 제393호 발행

2007.11.10 포천신문 제394호 발행예정